

민화 키링, 캐리커처 등 다양한 부스로 즐거웠던 서울 대동제

김문희 기자 poetry_5989@khu.ac.kr

#1일차

【서울】서울캠 가을 대동제는 조용하게 그 시작을 알렸다. 중앙박물관은 문과대 앞에서 민화 창작 원데이 클래스를 열었다. 중앙박물관이 현재 전시회에 공개하고 있는 송학도, 심장생도, 화조도 등의 민화가 그려진 열쇠고리를 만들 수 있었다.

노천극장 앞에서는 사진 중앙 동아리 KHPC 부스가 열렸다. 카메라 브랜드를 3개 말하거나 특정 사진을 보고 어느 장소인지 맞히는 이벤트를 열었다. 필름통 모양의 열쇠고리, 직접 촬영한 엽서 등을 상품으로 줬다. 해당 부스에서 만난 이준혁(경영학 2019) 씨는 “필름으로 친구들과 사진을 남길 수 있어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말했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도 노천극장 앞에서 <퍼즐러쉬>란 이름으로 부스를 열었다. 부스에서는 학소위가 제안하는 4가지 학내 문제(▲네티페이크 성범죄 경희대 방 ▲키워 친화적이지 않은 심리상담센터 ▲장애 학생 휴게실 처우 ▲학생회관 엘리베이터 미설치) 중 하나를 뽑아 퍼즐을 맞추는 게임을 진행했다. 캠퍼스의 저녁은 각종 주점의 등으로 물들었다. 주점은 문과대 앞에서 노천극장을 따라 스페이스21에 이르렀다. 이과대 ‘이상 문구’는 여러 이벤트를 열었다. 방문록 형식으로 그림일기를 쓸 수 있었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테이블끼리 붙어 딱지치기 승부를 겨루는 이벤트도 있었다. 최종 승리를 거머쥔 테이블에는 음료와 안주 하나를 무료로 제공했다. 주점을 이용한 박세영(회화 2024) 씨는 “중간에 이벤트가 있어 더욱 재밌었고, 축제 느낌이 물씬 났다”며 “물도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일차

<경희도 희(喜)다> 부스가 노천극장에서 열렸다. 이색적으로 꾸며진 경희대 깃발 4개를 흔들 수 있는 포토존이 학생을 반겼다. 희/노/애/락이라는 주제 맞는 추천곡을 게시판에 부착하면 한정판 ‘쿠웅이 굿즈’를 제공했다.

만보기를 머리와 손목에 차고 흔들며 일정 횟수가 넘으면 뽑기 기회를 획득해 상품을 얻는 행사도 있었다. 학생들이 노천극장에서 머리를 흔들고 팔을 흔드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동준(사학 2024) 씨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활동을 해보며 좋은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다”며 “특히 경희대학교 깃발을 흔들 때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천극장 둘레에서는 회화와 23학번 학생들이 <미대생이 그림그려드립니다>란 이름으로 캐리커처를 그려줬다. 학생들은 5천 원 이내의 일정 대가를 지불하고 체험할 수 있었다. 대표자 권가현(회화 2023) 씨는 “그림을 받고 기뻐하는 표정을 보면 저희 또한 큰 뿌듯함 느꼈다”고 말했다.

양일 노천극장 앞에서 주점을 운영한 <경희대 매점>은 다른 주점과 다르게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최하지 않았다. 개인 차원의 학생이 모여 만든 주점으로, 대표자 최나현(미디어학 2023) 씨는 “한 공간에서 다 같이 노래를 들으며 먹고 마시는 분위기가 고등학교 때 상상하던 대학 축제였는데, 이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경영대 ‘추진(秋進)’

대동제가 끝난 바로 다음 주, 경영대 축제 추진(秋進)이 열렸다. 1일 차엔 경영대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노천극장에서 이뤄진 2일 차 축제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도 함께 축제를 즐겼다.

BIZ가왕 행사가 이목을 끌었다. BIZ가왕은 경영대 학생이 복면을 쓰고 노래하는,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를 가리는 경연이다. 심사는 오픈 채팅을 통한 투표로 이뤄졌다.

BIZ가왕 행사 외에도, ▲경영대 댄스 소모임 ‘블루벨’ ▲고려대 중앙 스트리트댄스 동아리 ‘KUDT’ ▲경영대 힙합 소모임 ‘쿠러쉬’ ▲경영대 락밴드 소모임 ‘희락’ ▲중앙밴드 동아리 ‘칸타빌레’ 등의 학생 공연이 열렸다. 아티스트로는 <유다빈 밴드>가 와 많은 학생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경영대 축제에 참가한 방주연(경영학 2022) 씨는 “코로나 이후로 끊겼던 경영대 축제인지라 기대가 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올지 걱정했었는데, 두 번째 날 노천극장에 사람이 많아 기대 이상으로 활성화가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호텔관광대 축제 ‘관광제’

호텔관광대(호관대)도 9월 30일부터 사흘 간 자체 행사를 진행했다. 앞마당, 위커힐 홀, 별관 옥상, 별관 지하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



①사진 중앙 동아리 KHPC 부스 ②경영대 축제 ‘추진(秋進)’ ③호텔관광대 축제 ‘관광제’

(사진=최연우 기자)

행했다.

앞마당에서는 학생의 손길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드로잉 부스 ‘단체 아트’를 시작으로, ▲나만의 프린팅 티셔츠 만들기 ▲별자리 운세 뽑기 ▲소개팅 부스를 포함한 학생 부스가 줄을 이었다.

위커힐 홀에서는 ▲포토존 ▲우

주 심리테스트(나와 어울리는 우주 구성 요소 찾기) 등이 발길을 끌었다. 별관에서는 ▲옥상 피크닉 ▲호관시네마와 옥상PUB ▲옥상 주점이 열렸다.

상시 이벤트 ‘별뿔별을 잡아라’를 통해 참여 학생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호관대 곳곳

에 숨겨진 별뿔별 카드를 찾으러 다녔다. ‘지구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이라는 이벤트도 열렸다. 전 단지에 제시된 문제를 연쇄적으로 풀어나가는 이동형 추리 게임이다. 마지막 날 저녁에는 <호관철도 999>라는 이름의 행사가 열려, 총 8개의 팀이 참가해 무대를 선보였다.